

광주지역 광산업계, 하반기 매출 호조에 따른 성장

올해 광주지역 광산업체의 총 매출액은 당초 목표로 했던 8,500억원을 훨씬 상회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반기에 계획된 시장개척단과 국내외 전시회를 통해 광산업체의 추가적인 매출이 이어진다면 1조억 원을 상회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이는 국내·외 맥내 광가입자망(FTTH) 시장을 겨냥한 광통신 부품기업들이 그 어느 해 보다 공격적인 경영에 나선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발광 다이오드(LED) 경관조명 등 반도체 조명업체와 광 응용업체들의 선전도 광주 광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회장 이기태)가 광주지역 280여 업체를 대상으로 파악한 '2007년 예상매출액'에서 잠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여세를 몰아 내년에도 광주 광산업체들이 어떠한 전략으로 시장으로 파고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KAPID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주요 광주 광산업체의 매출과 주요 성과, 내년도 계획 등을 살펴본다.

LG이노텍(대표 허영호) 광주공장의 경우 디지털 카메라 모듈과 LED 소자부문을 합쳐 올해 2740억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중 광정밀기기 분야에서 각 분기별로 400억~500억원의 매출로 1900억 원의 매출을, LED 소자부문에서는 84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태양광 모듈 전문 제조기업인 심포니에너지(대표 윤정택)는 올해 600억원의 매출로 지난해 370억원에서 2배 가까운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사는 연간 50MW 규모의 모듈을 조립할 수 있는 라인을 갖췄으며 올해 태양 광 설치부문에 진출, 300~400가구의 전기공급이 가능한 1MW급 태양광발전소를 해남에 짓는 등 올해 3MW 시공실적을 올렸다. 지난 3월 사모투자 전문 신한프라이빗에쿼티로부터 투자를 받은 심포니에너지는 태양전지 잉곳(ingot) 제조라인을 증설해 내년에는 매출 1000억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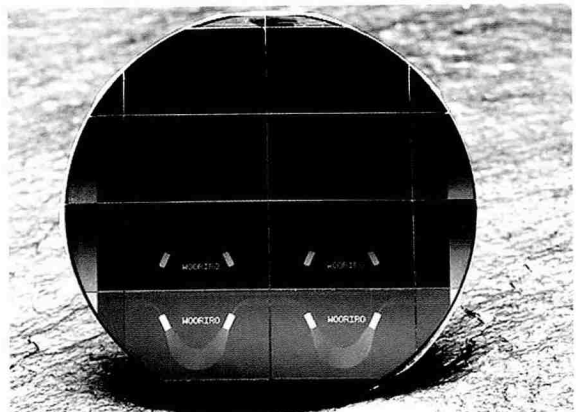


전자부품제조 및 LED 응용제품 개발업체인 광주인탑스(대표 김형태)도 올해 38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이와 함께 서울반도체 광주공장도 지난 2/4분기때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 LED 응용 및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19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지난 9월 국내 조명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유명 디자이너의 이름을 딴 '앙드레김 라이팅' 조명을 출시한 대방포스텍(대표 이현도)은 150억원의 매출실적을 거둘 것으로 조사됐다. 대방포스텍은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앙드레김이 직접 디자인한 50여종의 제품을 고급조명시장에 본격 출시함으로써 내년에는 올해보다 2~3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앙드레

김 조명 출시 이후 국내·외 대형 건설회사의 주문이 잇따르고 있으며 아랍 에미리트, 베트남 등 해외 진출도 서두르고 있다.

디에스아이(대표 송양근)는 고휘도 LED를 이용한 보안등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LED와 야간경관조명 분야에서 150억원의 매출로 비교적 선전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이솔루션(공동대표 추안구·박용관)은 광파이버 한 가닥으로 송·수신이 가능한 양방향 소형 광트랜시버 모듈을 개발하는 등 원천기술 확보에 일본, 북미, 유럽 수출에 박차를 가해 120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이 회사는 독보적인 광·송수신 모듈의 설계 및 제작기술로 점차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알려지면서 내년 급성장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휘라포토닉스(대표 문중하)는 FTTH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평판형 광분배기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KT를 비롯해 국내·외 물량 공급을 늘려 올해 100억원 이상의 매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광통신 부품과 함께 광통신 전송시스템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내년에는 2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옵시스테크놀로지(대표 윤지현)는 광중계기 모듈 공급에 주력하면서 올해 매출 '100억 클럽'의 가입이 예상되며, 글로벌광통신(대표 박인철)도 금년에 신규 공장으로 이전을 하여 국내 옥내용 점퍼코드 전체 생산량의 70%가량을 생산하는 등 설립 이후 매년 4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광케이블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100억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광통신은 옥내용 광케이블과 함께 조명용 LED케이블 등 차세대 아이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국내·외 광통신망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광 응용 제품 개발업체 프로텍(대표 이용범)은 공정제어 및 원격제어, 산업용 자동화 시스템부문을 비롯해 CCTV 카메라렌즈 등 광학부문에 진출해 90억 원의 매출실적을 거두고, 에피플러스(대표 박해성)도 화합물반도체 에피웨이퍼 분야에서 8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 옵테론(대표 신권식)도 광통신 모듈과 파장분할다중화기(AWG) 등 주력 제품으로 FTTH 시장에 적극 대응해 8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로광통신(대표 김국웅)은 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 됐다.

이밖에도 금번 수요조사시 매출액 등의 기업공개를 하지 않기로 요청한 많은 광산업체의 매출액도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80%이상 업체들이 생산액과 매출액이

상승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광주 광산업계의 성장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적으로 FTTH 구축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다, LED 경관조명 등 광 응용 시장도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그 만큼 제품의 질과 가격 분야에서 경쟁력이 치열해진다는 의미도 담고 있으며 업체 간 우열이 극명하게 엇갈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에는 그 어느 해 보다 동종 업체 간 주도권 다툼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에는 광주 광산업계가 주력제품의 질과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외로 거래 선을 확대하는 등 공격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투자와 시장개척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KCI**

